

이란 농업개황

이란은 1980~9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등 국내외 불안요인으로 밀 등 곡물을 수입해야 할 정도로 농업의 개발정도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이란 정부는 농산물 가공 산업 개발, 유통구조 혁신, 기계화 영농 실시 등 농림수산업 진흥에 매우 적극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란의 농업은 전체 생산의 55%를 밀과 보리가 점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후로 인해 약 400여종의 농산물이 재배되고 있다.

특히 과일생산은 세계8위 규모로 연간 약 300만 톤을 생산하여 이중 10만 톤을 수출하고 있다. 이란의 특산물인 피스타치오는 석유, 카펫에 이은 3위의 수출품이다.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이란의 농업에 대해 최근 이란 농업의 변화와 향후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농업 일반

이란은 전 국토 중 경작이 가능한 토지는 단지 1,500만 ha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에서도 700만 ha만이 관개시설이 제대로 되어있을 뿐이다. 이란의 농업환경이 척박한 원인은 기후, 풍토 등의 자연조건에 의한 것인데 연간 강우량이 1,000mm를 넘는 지역이 카스피해 연안지방에 한정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경작지는 주로 카나트(qanat)라는 지하수로를 이용하는 전통적인 관개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에는 양수기의 보급이 보편화됨에 따라 지하수의 이용도 크게 늘었다. 모든 경제개발계획을 식량의 생산과 증가에 중점을 두어 농사에 필요한 충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저수지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고,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하리루드(Halirud-Joroft), 샤루드(Shahrud), 라르(Lar), 미납(Minab), 퀘쉬라그(Qeshlag)에 저수지를 만들게 되었다.

이슬람 혁명과 전쟁의 피해는 농업부문에 크게 나타났는데, 이슬람 혁명 후 시행된 토지개혁에 따른 토지소유권의 미해결로 농업발전이 저해되었다. 샤 정권의 몰락이후 중앙정부의 권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토지의 대량 매입이 크게 성행하여 이농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또한 장기간의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이란 농업은 또다시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국경지대의 농촌이 전쟁으로 황폐화되고 과대한 전비지출로 농업투자가 감소되어 씨앗, 비료, 농약 등 투입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었으며, 노동력 또한 크게 부족하여 침체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인력과 투자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농업기술지원과 농촌개발사업은 주로 1983년 말에 결성된 자하드-에 사잔데기(Jihad-e Sazandegi)라고 불리는 재건 봉사대에 의해 주로 수행되었다. 이들은 주로 애국심이 강한 젊은 자원 봉사자들로 구성되었으나 기술지원능력과 경험이 부족하고 대민관계 또한 매끄럽지 못하여 이란 농업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또한 지역적으로도 곡창지대였던 쿠르디스탄과 면화재배지 투르코만 평원이 정치적 불안으로 어려움이 가중시켰다.

그러나 이후 기존에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줄이고 대신 곡류 생산을 대폭 증가시켜 경작방법에 있어서도 신농작법보다는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 곡류를 재배하여 생산량이 크게 급증하게 되었다. 또한 곡류가 격이 상승하여 채소류 재배하던 농민들이 곡류생산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2. 농업의 변화

인구증가, 도시화의 급속한 진행, 식품공급 위기 초래, 건강 식단 붐, 환경의 불안전성,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전통적 농업체제, 선진국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새로운 농림기술 등은 새로운 천년을 맞는 이란 농업이 직면한 과제들이다.

과거 산업화의 축에 중심을 두었던 이란은 현재 연간 인구 증가율이 1.2~1.4%로, 이는 연간 80만에서 100만의 새로운 식품 소비자가 생기는 것과 동등한 것이다. 이란의 인구는 2000년대를 시작하면서 약 7천만으로 추정되고 있고 증가 추세로 볼 때 향후 약 20년 내 1억명 정도까지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농지 개발을 포함한 농업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전반적인 관심 부족과 통신과 기계장비 활용의 실패가 생산량 감소와 농민의 수입 감소로 이어졌고, 결국 농민이 농촌을 떠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도시화는 더욱 급속도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도시로 이주한 농민들이 주된 농산물의 소비자가 되었다.

이란은 잠재력에 비해 농업의 개발정도가 미흡한 실정이며 정부는 식량 자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농산물 가공산업 개발, 유통구조 혁신, 기계화 영농실시 등의 농업 진흥에도 매우 적극적이다. 1995년부터 정부는 농업개발정책을 농산물의 생산량을 증가하여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것과 이란 국내 식량가공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농업정책의 중심을 두고 있다.

3. 주요 농산물

이란은 사계절의 기후 변화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적 위치와 지리적 상황 때문에 다양한 농업이 가능한 나라이다. 이란의 북쪽 지방에서 감귤류 과일이 개화할 때, 남쪽 지방에서는 다른 종류의 여름과일이 생산된다. 게다가 내수용으로 소비되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수준에서도 매력이 있는 고도의 잠재력을 갖춘 농산물도 있다.

3.1. 피스타치오와 쌀

이란의 농산물 생산 및 수출에서 1위인 이란의 대표적 농산물이 피스타치오이다. 피스타치오의 수출의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주로 케르만(라프산잔), 가즈빈, 담간 지방에서 40만 ha의 땅이 피스타치오 경작지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이란의 피스타치오 주산지는 케르만이다. 불행하게도, 최근 몇 년간의 기후 변화로 피스타치오의 생산량은 2003년에 23만 톤에서 2004년에 거의 절반가까이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피스타치오의 생산 감소는 국제시장에서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적합한 포장 시스템이 없는 것이 이란산 피스타치오의 문제점이다.

또 이란의 유명한 농산물중 하나인 쌀은 그 맛과 향 때문에 세계적 수준에서 유사한 상품 가운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길란 지역에서는 약 32만 ha의 농토에 쌀을 경작하고 있고, 매년 60~70만 톤의 쌀이 생산하고 있다. 또 다른 종류의 쌀이 마잔다란 지방에서 경작되고 있는데 이 쌀은 타이에서 수입되는 다른 쌀에 비해 여전히 우수하다. 그러나, 약간 품질은 떨어져 공공 할당제도하에서 유통되고 있다.

그림 1 이란의 피스타치오 주산지



쌀은 많은 노동력과 돈이 요구되는 상품이다. 때때로 폭우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농민은 쌀을 대체할 작물을 찾아야 하는 위협도 존재한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비농업적 목적으로 쌀 경작지를 양도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3.2. 차(茶)와 밀

상점이나 쇼핑센터에서 판매하는 밀수차(密穗茶)는 수제차(手製茶)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이다. 현재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1세기 이상 이어온 차 경작이 이란의 농산물 목록에서 빠지게 될 것이다. 고임금, 정부의 지원 결여, 과도한 해외 차의 수입, 기계화 생산 설비 부족과 낮은 차 가격은 차 경작을 그만두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하는 요소들이다. 그러나 이런 농산물

이 이란의 수출품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만들고, 북쪽 지방 사람들의 경제생활에서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란의 주요한 농산물인 밀 경작에 관한 한 이란은 국내 수요를 충족시켰다는 범위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생산자들이 밀 경작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란의 적합한 기후를 감안한다면 몇 년 안에 적어도 이웃국가들에는 이란이 밀 수출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3. 설탕 산업

농업의 주요 목표가 가공 농산물의 생산이었던 과거 여러 해 동안 사탕무 재배지에 여러 설탕공장을 지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설탕산업의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고 국가경제에서 설탕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게 되었다.

통신 장비 이용과 지역의 적합한 기후덕분에 카룬(Karoon) 농산업단지에서는 설탕상품의 주원료인 사탕수수 경작에 힘을 쏟고 있다. 사탕수수를 가공하는 최초의 설탕 상품 시설은 쿠제스탄주(州) 하프트 타페흐 지역에 지어졌다. 이란의 인구가 1980년에 3천4백만에서 2003년에 7천만으로 증가했지만, 덩어리설탕과 가루설탕의 일정량 배급과 시장에서 설탕가격 상승으로 설탕소비는 떨어지게 되었다. 1차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 부족과 종합적인 계획의 부재로 2004년 1분기에 16만 톤의 설탕수입을 허가했다.

이렇게 계속된다면 차 경작이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설탕산업도 곧 똑같은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쿠제스탄에 있는 설비에서 나오는 설탕 생산량은 약 60만 톤이고, 사탕무를 가공하는 다른 30여 개의 설비에서 약 65만 톤이 생산된다. 그러므로 전체 생산량은 125만 톤에 달하고 이 중 10~20만 톤은 매년 수출시장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소비된다. 그러나 종합적인 계획의 부재로 상품으로부터 수익을 얻

기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생산설비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재정문제에 직면하곤 한다.

그림 2 쿠제스탄 지방의 농산업 단지 위치도



3.4. 주요 농산물의 수출량 및 생산량

이란은 피스타치오 수출에 있어서 1위자리를 지키고 있고, 대추는 2위, 체리는 7위의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02년에 과수류는 1334만 톤을 생산했고, 2003년에는 1372만 톤으로 증가했으며, 2004년에는 1408만 톤이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란은 다양한 기후덕분에 생산량을 기준으로 살구는 세계 2위, 호두는 3위, 아몬드 4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3 이란의 감귤류 주산지



주로 이란의 북부 지방, 특히 마잔다란 주(州)에서 생산되는 감귤류 과일
은 반, 미납, 쉬라즈와 같은 남부지역에서도 자란다. 이란은 오렌지가 세계
6위, 레몬은 8위, 라임은 10위의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제철에
한정적이어서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냉장저장고 설비가 갖추어져야만
한다. 더 나아가, 마잔다란 지방에서 생산되는 키위는 국내 시장의 수요가
있는 만큼 쉽게 호주산 키위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고, 남쪽지방과 북쪽지
방에서 재배되는 바나나에 대한 수출 등의 대책도 있어야 할 것이다.

3.5. 기 타

위에서 말한 농산물이외에도 이란은 또 다른 지역에 화훼, 관상수와 같
은 주목할 농산물이 있다. 특히 ‘원예·식물’ 전담부서가 이란의 무역추진
협회(Trade Promotion Organization)에 설립되었다. 최근에 쿠제스탄 주(州)

의 수시, 테헤란, 쉬라즈와 마할라트는 화훼와 식물 생산품과 관련된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표 1 이란 주요 농산물 재배면적과 생산량

단위: 천ha, 천톤

	2003년		2004년		증감율	
	재배면적	생산량	재배면적	생산량	재배면적	생산량
밀	6,409	13,440	-	14,000	-	4.2
보리	1,510	2,908	-	2,900	-	-0.3
벼	615	2,931	-	3,100	-	5.8
목화	140	352	-	430	-	22.2
사탕무	178	5,933	-	4,900	-	-17.4
사탕수수	55	5,196	-	6,100	-	17.4
차(茶)	31	212	-	130	-	-38.7
지방종자류	245	393	-	400	-	1.8
담배	14	22	-	26	-	18.2
콩류	1,014	671	-	650	-	-3.1
감자	173	4,211	-	4,600	-	9.2
양파	46	1,574	-	1,620	-	2.9
피스타치오	312	235	-	183	-	-22.1

자료: Ministry of Agriculture Jihad, IRAN

자료: Iran Exports & Ministry of Agriculture Jihad, IRAN
(김홍원 andrew@krei.re.kr 02-3299-4184 한국농촌경제연구원)